

"오미크론을 넘어,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으로"

포스트 오미크론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추진

심화편 2편



1
감염병 등급 조정 (확진자 격리)

✓ **감염병 등급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됩니다.**

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,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합니다.

참고 :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			
구분	제1급감염병 현재	제2급감염병	
		격리의무 유지 (이행기 (4.25~4.30.30))	격리 권고 전환 (안착기)
신고	전수 감시, 즉시 신고	전수 감시, 24시간내 신고	
격리어부	• 법적 격리 의무 부과 •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* 전실 및 응급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• 재택·시설 격리치료 가능	•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•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 관리 • 재택 등 자율관리	
격리통지 강제처분	• 질병청장, 시도지사, 시군구청장이 통지 •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·1천만원이하 벌금	• 의료기관 자체 관리 • 법적 강제 없음	
치료지원	• 입원·시설·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* 건강보험 수가,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	• 건강보험 수가 • 환자 본인부담 * 단,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	
생활지원	• 생활지원비(일 지원액 2만원) • 유급휴가비(중소기업, 일 4.5만원 상한) 등	•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	

* 제1급 : 에볼라, 사스, 메르스, 페스트 등 17종 / 제2급 : 결핵, 홍역, 콜레라, 수두 등 21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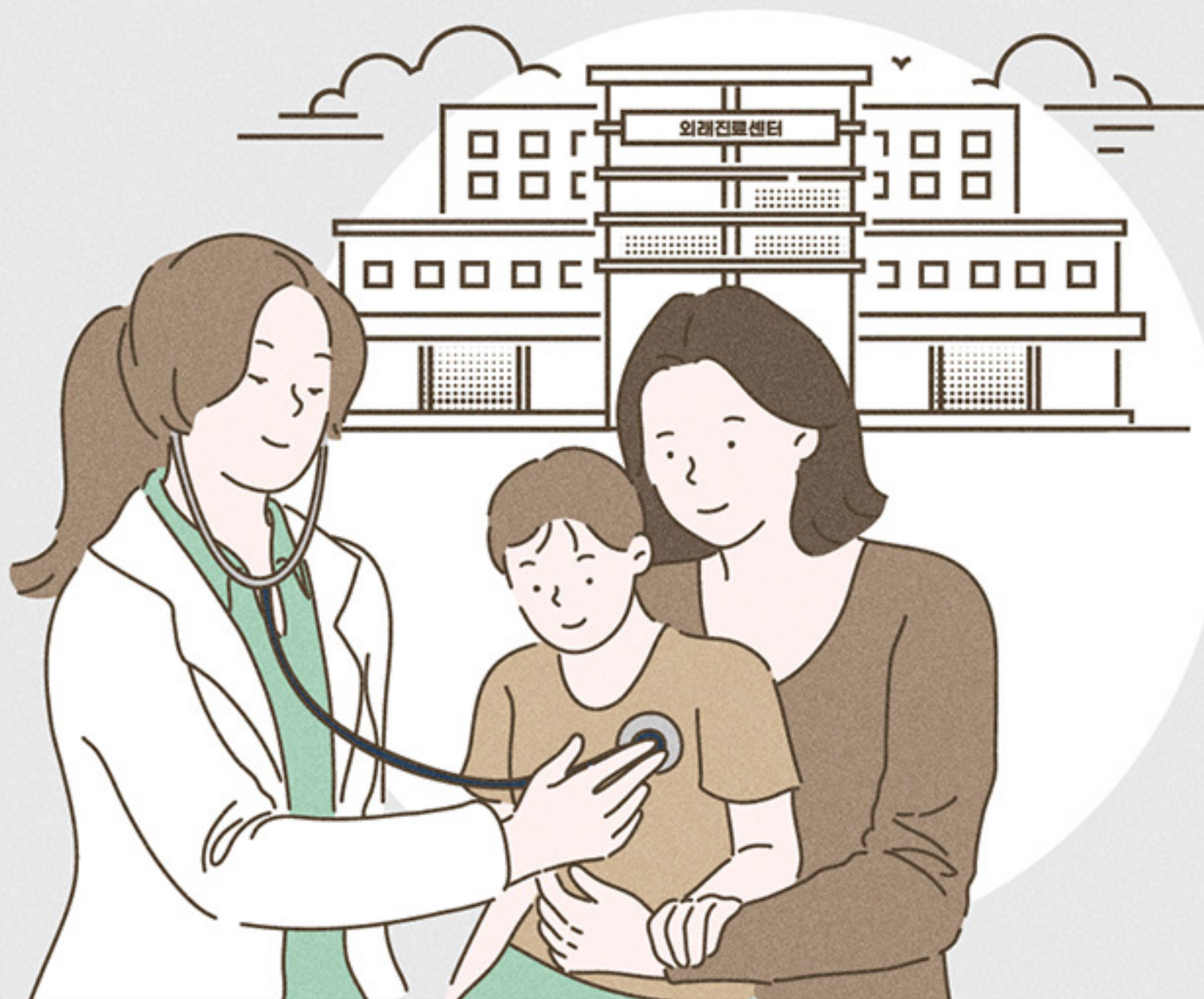
✓ **확진자 신고는 24시간 내로 변경됩니다.**

‘즉시신고’ > ‘24시간 이내 신고’로 변경됩니다.

이행기 동안 7일 격리 의무 유지. 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, 안착기에는 ‘격리 권고’로 전환할 계획입니다.

2

재택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

 **대면진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.**

이행기 동안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합니다.
대면진료가 가능한 “외래진료센터”를 지속 확충하여
**안착기 이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
가능하도록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.**

3

치료체계 개편 중등증 병상 중심 이으로



- ✓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**중등증 병상**부터 우선 **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.**
- ✓ **이행기**에는 확진자 수, 병상가동률 고려하여 **거점전담병원 이외 모든 중등증병상을 지정 해제**하고, **안착기**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, 긴급치료병상,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**중증 확진자에 대한 치료 체계를 지속하겠습니다.**

4

생활치료센터 단계적 축소



- ✓ 생활치료센터 가동률, 일반의료대응체계 전환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하고,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지속 운영합니다.

5

 응급·분만·투석환자
 치료체계 기능회복


- ✓ 응급 관련, 코호트 격리 구역 등 **유증상자 응급진료 공간을 확보**하고,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시킨 **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**하겠습니다.
- ✓ 분만·투석 등 특수진료에 대해, 기존 확보한 특수치료병상과 일반 병상 활용을 병행하고, 차후 **일반병상을 통한 치료로 전면 전환 계획**에 있습니다.